

설 메시지

안녕하십니까? 즐거운 설입니다.

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시겠지요. 고향 가는 길이 올해는 좀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른들께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는 뜻깊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.

그런데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국군장병, 경찰관, 소방관, 그리고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버스·택시 기사 여러분도 떡국만큼은 꼭 챙겨 드십시오.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모두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.

국민 여러분,

올 설에도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요. 경제가 잘돼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올해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걱정은 여전합니다.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재래시장이나 식당하시는 분, 자영업하시는 분, 또 개인운수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.

이처럼 어려운 지대에 사시는 여러분들 형편이 피도록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물가와 집값 때문에 서민 여러

분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올해는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. 2005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 나갑시다.

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되시기 바라며, 모두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